

‘광주형 일자리’ 대표에 박광태 전 시장 낙점 관심

‘카리스마 리더십’...추진력·저돌성으로 ‘조기 안정화’ 최적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에 박광태 전 광주 시장이 선임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0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합작법인 주주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박 전 시장의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대 대표이사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3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을 역임해 어느 분보다 자동차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정계, 재계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광주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다”며 “노사상생의 사회대통합형 정신

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했고 인사추천위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투자자들이 박 전 시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낙점한 것은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조기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한다.

합작법인 임원은 이사 3명과 감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1대 주주인 광주시와 2대 주주인 현대차, 3대 주주인 광주은행이 이사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이사만 선임했다. 나머지 이사는 기술성과 전문성 있는 이사,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류했다.

이유는 현대차가 추천한 이사가 최근 시작한 박모 전 부시장이라는 데 있다.

박 전 부시장은 현대차 정책조정팀장을 거쳐 부시장에 오른 ‘대관(對官)업무 전문가’이다. 공장장 경험 없고 시설 설비, 라인 등의 분야에서는 문외한으로 전해진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박 전 부시장

이 ‘반노동자 성향’에 전문성이 없다며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이용섭 시장이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 2명 정도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리스마 제왕’ 박 전 시장의 대표이사 낙점은 합작법인 초기의 잡음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은 3번의 국회의원 기간 산자위원과 산자위원장을 역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초기 합작법인을 이끄는 데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현장 경험”이 없는 박 전 부시장이 합작법인 이사로 경우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며 “강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있는 박 전 시장이 대표를 맡으면 현대차는 물론 산업자원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관광 활성화 위해 하천불법점유 자제해야”
김기태 도의원, 적극 행정 절실

최근 천사대교 개통 등 호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인식전환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은 21일 “올 1분기 전남지역 관광객 집계 결과, 총 1천 269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이는 지난해 1분기 관광객 951만 1천517명에 비해 26%(318만 850명) 증가한 수치다”며 “이번 여름 휴가철 역시 전남에게는 또 다른 호재로 다가오고 있고 전국 섬과 해변, 갯벌을 65% 가량 소유하고 있는 전남은 여름 남도축제의 천혜의 장소라는 점에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로 인해 상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전남의 계곡은 맑고 청정하더라도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며 “상인들의 갈등이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상인들의 친절도 역시 관광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대목”이라며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 책마을 인문산책 프로그램 모집

광주 동구가 책 읽기 활성화와 책방문화 정착을 위한 ‘책마을 인문산책’ 프로그램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2019 행복한 책마을 조성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책방이 모여 있는 지산동·계림동·동명동 일원을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진흥과 서점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동네책방 및 비영리문화단체가 기획·운영하는 △작가의 만남 △북 토크 △그림책 전시 △책방독서모임 등 책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행사규모와 성격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 ‘동구책방 지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이뤄진다.

동구는 개최역량, 주민을 위한 책 문화공간으로 발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중으로 최종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본격 운영

광주 서구가 21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서구 세하동에 위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무실, 저온저장시설, 창고 등 341㎡ 규모로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우수한 농산물 공급업체와 배송업체를 모집·선정하고 매월 서구 관내 초, 중, 고 54개교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품목 및 단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재료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식단을 작성해 센터에 제출·신청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게 된다.

남구 “차음미하며 예절도 배우니다”

광주 남구는 전통 차(茶) 문화와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도’ 생활예절 프로그램을 2달간 운영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2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사직동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전통 다도를 통해 생활 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통 차와 생활예절에 관심이 있는 주민 15명이 참여하며, 전통차예절인사 전통문화예술연구소 소장인 백종희씨가 강사로 나서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차 문화와 생활예절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차의 역사와 종류를 비롯해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통 차와 홍차, 백차, 로즈마리 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음미하게 된다.

북구, 하반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광주 북구가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150여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9월 16일부터 11월까지 북구 평생학습관 3층에서 진행되며 강좌별 수강인원은 20명 이내로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 오븐 브런치△처음 만나는 글쓰기 교실 △집밥 쿡클래스 △마스터 클래식 △전통 매듭 교실 △사물 세밀화 △생활자수 소품만들기 등 7개 과정이 운영된다.

광산구, 청소년 지방세정 체험 프로그램 성료

21일 광주 광산구가 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의 주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방세정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부·처리 절차 등을 체험하며 ‘납세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

광산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달 30일 참가 청소년 8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네 조로 나눠, 다음날인 31일부터 이날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사전 교육과 현장 체험활동으로 짜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장 체험활동에서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광산구 공직자와 송정·도산동 일대를 돌며 스마트폰으로 제반 차량 조회를 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는 등 세부행정을 경험했다.

전남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1등급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총 건수,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생존지수, 수술 후 입원일수 지수,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중으로 인한 재수술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은 전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다른 부위의 동맥이나 정맥을 이용해 막힌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다.

뉴스1

본 사 사 령

임형택
편집국 지역사회부
(광산부국장 → 국장)

박종영
편집국 지역사회부
(담양) 부국장 →
(담양·장성) 국장

<2019년 8월 22일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5년 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현재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